

이문화접촉공간에 있는 2언어 병용화자의 포리너 토크에 관한 연구*

—나고야 체재의 한국인유학생을 중심으로—

吳美京**

< 요 지 >

본 연구는 이문화접촉공간 나고야에 거주하면서 한국어를 모어로 하는 2언어 병용화자를 대상으로 이들이 타자(청자)의 언어능력을 배려하는지, 배려한다면 FT라는 조정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하였으며, 이 때 선행연구(오미경, 2010)와의 비교를 중심에 두었다. 본 연구에서는 나고야에 거주하는 2언어 병용화자(KKN)의 FT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세 단계에 걸쳐 발화분석을 하였다. 먼저 KKN이 두 종류의 청자(한국인, 일본인)에게 이야기를 전달할 때 발화수와 발화시간을 분석한 결과, 발화수와 발화시간에는 큰 차이가 없었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애니메이션 중 스토리가 있는 특정 장면을 설정·커팅하여 그 해당 장면을 설명할 때 어떠한 발화특징이 있는지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핑구」를 설명하는 과제에서만 일본인청자에게 더 많은 발화양이 산출되었다. 그러나 특정장면의 설명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청자유형에 따른 발화양에는 두드러진 차이가 없었다. 즉 전체장면을 설명한 총 발화양과 발화시간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특정장면을 설명하는 부분에서도 청자유형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KKN이 청자를 배려한 의식정도에 따라 이야기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각각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서 비교하였다. 그 결과, 청자유형에 따른 설명상황은 서로 상이한 양상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중요한 점은 제2언어환경인 나고야와 외국어환경인 부산에서 실시된 한국어모어화자(KKN, KKB)의 FT 발화특징에는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즉 본 연구에서는 KKN과 KKB의 FT 발화특징이 서로 다를 것이라고 예상한 것과는 달리 유사한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2언어환경인 나고야와 외국어환경인 부산에서 실시된 한국어모어화자의 FT 발화특징에 차이가 없다는 결과는 해항도시 부산이 놓인 언어사회환경이 다문화·다언어로 변해가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논문분야 : 사회언어학

키 워 드 : 2언어 병용화자(Bilingual), 이문화접촉공간(Cross-Cultural Contact Settings), 한국어모어화자(Korean Native Speaker), 청자(Listener), 포리너 토크(Foreigner Talk)

1. 머리말

최근 일본 지역사회에서는 일본어를 모어로 하지 않는 외국인 비모어화자들 (예컨대 유학생, 노동자, 국제 결혼에 의한 외국인배우자, 난민 등)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하는 일본어교육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¹⁾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일본어 교육에서는 일본어를 모어로 하는 화자(Native Speaker)와 다른

* 이 논문은 2008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조정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08-361-B00001).

**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HK연구교수, 사회언어학.

언어문화권에서 국경을 넘어 이동해 온 비모어화자(Non-Native Speaker)들이 공생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모어화자와 비모어화자간의 쌍방향적 교섭과 조정이 필요하다는 다문화공생의 이념이 왕성하게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논의는 일본국 내에서 날로 증가하는 ‘이동하는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하자는 것인데, 그 목표는 비모어화자들이 생활하면서 맺게 되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된다. 이렇게 일본으로 ‘이동해 온 사람들’ 중에는 유학을 목적으로 하는 비모어화자들도 있는데, 이들은 언어문화권의 변화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한다. 따라서 일본어교육이 말아야 할 역할은 ‘교실’ 안에서만 이루어 질 것이 아니라 비모어화자들의 학습 현장 및 생활 현장 전체와 연동되어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즉 ‘언어’의 관점에서 보다 폭넓고 장기적인 시야로 ‘이동하는 사람들’의 생활을 보아야 할 것이며, 그들과 그들의 주변사람들, 물자, 활동 간에 네트워크와 교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포리너 토크(Foreigner Talk: 이하 FT로 약칭)는 모어화자와 비모어화자의 접촉장면에서 나타나는 의미교섭(interaction of meaning)의 특징 중 하나로서 회화참가자인 모어화자가 비모어화자에게 행하는 조정행동으로 알려져 있다(小林, 2000).²⁾ 즉 FT란 특정한 언어를 모어로 하는 화자가 그 특정언어에 능숙하지 않은 비모어화자의 청자를 위해 음성, 어휘, 문법, 담화의 측면을 배려한 결과로 나타나는 자기조절 담화이다(스쿠타리데스, 1981:54; 橋内, 1999: 119).

본 연구의 목적은 이문화접촉공간인 나고야에 살면서 한국어를 모어로 하는 2언어 병용화자(유학생)를 대상으로 해서 이들 한국어모어화자가 타자(청자)에게 보이는 배려로 인해 FT라는 조정행동에서 어떠한 영향이 나타나는지 밝히는 데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나고야에 거주하는 한국어모어화자의 FT발화산출 특징이 부산에 거주하는 한국어모어화자의 FT(오미경, 2010)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도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나고야와 부산을 비교대상으로 선정하게 된 것은 이 두 도시 모두 이문화간 문화교섭이 활발히 진행되는 해양도시로서의 사회문화적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구체적 연구방법에서는 비대면 접촉장면에서 한국어모어화자가 청자유형에 따라 어떻게 이야기를 전달하며 FT를 조정하는가를 실험발화 데이터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선행연구에서는 우선 이문화 접촉경험과 타자에 대한 태도를 다룬 연구를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는 2언어 병용화자를 대상으로 한 발화행위에 관한 연구를 개관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2언어 병용화자(한국인일본어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FT에 관한 조사를 소개할 것이다.

- 1) 일본 지역사회에 정주하는 일본어 비모어화자들은 1990년대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된 후 중남미에서 日系인 노동자들이 대거 들어오면서 현저하게 늘었다. 예컨대 중국 귀국자와 인도네시아 난민, 국제결혼에 의한 외국인배우자들이 이에 속한다(石井, 2008).
- 2) FT는 1960년대 후반 사회언어학자 피거슨(Ferguson, C)에 의해 그 존재가 밝혀진 이후 「모어화자가 비모어화자에게 행하는 수정된 말 사용」이라고 정의되어 왔다(Ferguson, 1971, 1981). 그 이후 담화단위로 분석 작업을 하는 실증연구는 포리너 토크 담화연구(foreigner talk discourse: FTD)라 불리었는데, 1980년대 이후 제2언어습득학자들은 「간략화(simplified register)」나 「이해 가능한 입력(comprehensible input)」으로서의 FT에 주목하여 제2언어습득에서의 그 유효성을 검증하는 연구를 활발히 수행해왔다.

2.1 이문화 접촉경험과 타자에 대한 태도

박윤경(2007)은 다문화 접촉의 경험이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인식 및 타문화 이해방식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 확인하기 위해 초등 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조사방법으로는 외국인 노동자 및 이슬람을 중심으로 문화 다양성을 체험할 수 있는 다문화 접촉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적용하였으며,³⁾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경험과 변화는 설문 조사 및 집단 인터뷰 결과와 학생들이 기록한 참여관찰지의 내용을 토대로 분석되었다. 박윤경(2007)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초등 예비교사들은 다문화 접촉 공간에서 직간접적인 방식으로 이질 문화 집단과 접촉을 하였으며, 문화 다양성 인식 및 이질 문화 집단에 대한 참여자들의 태도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⁴⁾ 송미영(2010)은 다문화를 수용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이용한 집합조사법으로 자료를 수집했다. 구체적으로는 성별이념 성향과 외국문화의 접촉경험, 이주민에 대한 호감이 다문화 수용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9가지의 가설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송미영(2010)은 외국방문의 경험유무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호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호감이 다문화 수용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송미영(2010)은 외국경험이 많을수록 대학생들의 다문화 수용성이 높게 나타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나아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외국방문 기회의 확대와 이주민에 대한 호감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의 소수집단에 대한 편견과 사회적 거리감, 부정적 인식 등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고찰하였다. 후(2009)은 FT의 사용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일본 국내에 있는 비모어화자(일본어교사) 15명을 대상으로 실험(2인 회화 및 3인 회화)에 의한 조사를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접촉장면에서 이뤄진 회화를 통해 회화 참가자가 FT를 어떻게 수용하는지 분석하였는데, 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후(2009)은 FT란 정형구나 언어형식, 패턴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과의 관계와 회화가 이뤄지는 상황 그리고 회화참가자의 조정능력 등에 의해 다르게 해석·수용할 수 있다고 고찰하였다. 즉 실제 접촉장면의 회화에서는 FT가 참가자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 변용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후(2009)은 「마음이 통하는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 다문화가 만나는 접촉장면 회화의 전제로서 「무표(無標) 포리너 토크(Unmarked FT)」가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⁵⁾ 筒井(2008)는 일본어모어화자가 일본어모어화자를 대상으로 쓰인 문장을 비모어화자에게 설명할 때 어떻게 말을 변용하는지 역할극을 이용해 조사하였다. 筒井(2008)는 조사를 통해 비모어화자와 접촉한 경험(접촉빈도, 접촉관계)이 다르면 설명하는 방식에도 명확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일본어 비모어화자와 접촉빈도가 높은 일본어모어화자일수록 상대방의 이해에 맞추어 정보내용을 조절하고 재구성하여 전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선행연구가 시사하는 바는, 다문화 접촉 경험은 타문화 집단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완화시킬 수 있으며, 나아가 이문화와의 접촉경험이 많을수록 타자에 대한 태도가 수용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3) 이 프로그램의 구성은 크게 사전 오리엔테이션과 다문화 공간에서의 조사 활동 및 연수로 이루어졌다.

4) 박윤경(2007)에 따르면 다문화 접촉 경험 이후 초등 예비 교사들에게 나타난 변화는 구체적으로 다음 세 가지이다. ① 외국인 노동자 및 이슬람 등과 같이 인종적, 민족적, 종교적으로 이질적인 문화 집단의 이미지를 제한하는 방식에서 변화가 있었다. ② 다른 문화 집단을 인식하는 기존의 접근 방식과 태도를 반성적으로 성찰하고 문화 상대성의 관점을 취득하려는 변화가 나타났다. ③ 다문화 사회에서 요구되는 교사의 새로운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성찰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5) 여기에서 無標 FT란 예컨대 일본어 접촉장면에서 회화 참가자가 일본어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언어사용(언어능력)에 차이가 있을지라도 서로가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회화환경을 말한다.

2.2 2언어 병용화자의 발화행위

외국어를 모어로 하면서 일본어를 제2언어로 습득하는 화자(이하 2언어 병용화자로 약칭)를 대상으로 한 발화행위(speech acts)⁶⁾ 연구는 지금까지 「중간언어 화용론(inter language pragmatics)」에 입각하여 진행되어 왔다. 「중간언어 화용론」에 입각한 발화행위 연구에서는 일본어모어화자와 2언어 병용화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차이점을 해명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 성과는 원활한 이문화간 커뮤니케이션 성립에 기여해 왔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일본어를 사용하는 2언어 병용화자의 발화행위 습득은 모어(first language)가 쓰이는 외국어환경보다 제2언어(second language)가 일상적으로 쓰이는 제2언어 환경(일본)에서 더 촉진된다는 점이 알려져 있다(伊藤, 2002; 迫田, 2002; 徐, 2002; 李, 2004).⁷⁾

伊藤(2002)는 2언어 병용화자가 제2언어 환경에 적응함에 따라서 학습자의 화용적 기능(pragmatic function)이 모어화자의 사용수준에 가까워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언어학습환경에 초점을 맞추어 조사를 수행했다. 구체적으로는, 「윗사람(目上)」과 「동등(同等)」이라는 두 종류의 발화 장면을 설정하여 권유에 대한 거절행위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일본어모어화자에 의한 거절행위와 제2언어 환경(일본)에서 학습하고 있는 말레이인 일본어학습자의 거절행위는 두 발화 장면(「윗사람(目上)」, 「동등(同等)」)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그러나 일본어모어화자에 의한 거절행위와 외국어환경(말레이시아)에서 학습하고 있는 말레이인 일본어학습자의 거절행위는 두 발화 장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경향이 있었다. 이 결과에 대한 伊藤의 해석에 의하면, 말레이인 2언어 병용화자의 화용능력은 외국어환경(말레이시아)보다 제2언어 환경(일본)에서 일본어모어화자의 수준과 차이가 더 작다. 또한 일본어모어화자와 체재기간이 오래된 학습자(도일 2년째 및 3년째) 사이에는 거절행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지만, 제2언어환경(일본)에서 체재경험이 짧은 학습자(체재경험이 없는 학습자 및 도일 1년차 학습자)사이에는 통계적인 유의경향이 나타났다. 이 결과에 근거해서 伊藤는 체재기간이 길어질수록 학습자의 발화행위(정중함)가 일본어모어화자의 수준에 가까워진다고 해석하였다. 迫田(2002: 95)의 연구에 따르면, 언어학습환경에 의한 경험의 차이, 즉 일본어를 제2언어환경에서 학습하는가 아니면 모어환경(외국어환경)에서 학습하는가의 차이는 예를 들어 이그저(コ・ソ・ア)같은 지시사의 일본어 습득항목 및 순서에 영향을 끼친다. 徐惠麟(2002)는 두 종류의 언어사용환경에서 일본어를 학습하는 2언어 병용화자를 대상으로 구두 내레이션(oral narration) 방법을 이용하여 시점(視點)에 관한 조사를 하였다. 이때 시점을 4가지로 구분하였는데, 그 4가지란 「주인공」과 「주인공과 다른 인물」, 「주인공 이외의 인물(1)」, 「주인공 이외의 인물(2)」이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첫째로, 일본에 있는 2언어 병용화자 쪽이 한국에 있는 2언어 병용화자보다 주인공시점으로 묘사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 조사결과를 근거로 徐惠麟(2002)는 일본에 있는 2언어 병용화자가 스토리가 있는 만화를 읽고 그것을 묘사할 때 「주인공」 입장에서 전달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두 번째로 두 종류의 2언어 병용화자 모두 주인공을 시점으로 하는 구문적 실마리로서 수동형과 수수보조동사를 사용하였지만 이들에게서 상이점이 나타났다. 즉 수동형의 사용률은 한국에 있는 2언어 병용화자보다 일본에 있는 2언어 병용화자 쪽에서 높았지만, 반대로 수수보조동사의 사용률은 한국에 있는 2언어 병용화자보다 일본에 있는 2언어 병용화자 쪽에서 낮았다. 이 조사

6) 발화행위라 함은 예를 들어 목표언어인 일본어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의뢰하는 행위(request), 사죄하는 행위(apology), 감사하는 행위(gratitude), 칭찬하는 행위(compliment) 등과 같이 언어를 사용하여 특정한 사회적 기능을 실현하기 위한 행동을 말한다(浜田, 2001: 170).

7) 2언어 병용화자를 둘러싼 언어사용 환경에서는 2언어 병용화자의 모어가 사용되고 목표언어(target language)가 외국어로서 학습상향에서만 사용되는 환경(외국어환경)과 목표언어가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환경(제2언어환경)이 구별된다.

결과를 근거로 徐惠麟(2002)은 언어사용환경이 수동형을 사용하는 언어방략에 영향을 주었으며, 이로 인해 2언어 병용화자의 시점에 차이가 생겼다고 해석하였다. 李(2004)는 한국어를 모어로 하는 일본어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여 두 언어사용환경의 차이가 불만 표명 방략에 영향을 끼치는지 조사했는데, 불만 표명 방략은 상대방의 체면(面子)을 압박하는 정도(the degree of face threat, FT度)에 따라 8가지로 분류되었다.⁸⁾ 李(2004)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한국에서 일본어를 학습하고 있는 2언어 병용화자가 일본에서 일본어를 학습하고 있는 2언어 병용화자보다 높은 FT度の 언어방략을 택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 조사결과를 근거로 李는 불만표명방략의 선택에 언어사용환경이 영향을 준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중간언어 화용론에 입각한 2언어 병용화자의 발화행위 연구는 주로 제2언어 환경(일본)에서 제2언어(일본어)를 사용한 경우가 일본어모어화자의 사용수준에 보다 가깝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이러한 선행연구가 시사하는 것은, 외국어를 학습하는 2언어 병용화자의 발화행위 능력은 사회적 문맥(social context), 즉 사회문화적 요인의 작용을 강하게 받으므로 외국어환경보다 제2언어환경에서 학습이 촉진된다는 점이다. 즉 이러한 관점은, 언어사용환경(제2언어환경)이 제2언어 학습에 미치는 언어학습의 촉진기능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2언어 병용화자들을 넓은 의미로 異언어공간에서 살아가는 이주민으로 파악한다면, 이들이 일상생활속에서 사용하는 모어는 목표언어와 마찰 및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제2언어환경이라는 언어공간을 목표언어의 습득을 위한 언어입력의 장치로만 볼 것이 아니며, 모어를 사용함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언어심리학적 갈등에 대한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2언어환경(일본)에서 모어(한국어)를 사용한 발화행위에 대한 연구도 병행하여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

2.3 한국어모어화자(부산)의 포리너 토크

일반적으로 FT는 接觸場面에서 나타나는 의미교섭(interaction of meaning)의 특징 중 하나로 회화참가자인 모어화자가 비모어화자에게 행하는 조정행동으로 알려져 있다(小林, 2000). 즉 FT란 특정한 언어를 모어로 하는 화자가 그 특정언어에 능숙하지 않은 비모어화자의 청자에게 이해가 쉽도록 音声, 語彙, 文法, 談話의 다양한 측면을 배려한 결과로 나타나는 自己 조절 담화이며, 지금까지 FT에 관한 연구는 주로 언어행동에 의한 발화 자료를 중심으로 이뤄졌다(辛, 2009; 筒井, 2008; 宮崎, 2002).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견해에 기초해서 오미경(2010)은 부산에 살고 있는 한국어모어화자를 대상으로 청자 타입(모어화자, 비모어화자)에 따른 차이가 FT 조정행동으로서 화자의 FT산출에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였다. 이때 만약 청자를 위해 의식적 배려를 하였다면 이야기를 전달할 때 「한국인 청자」 조건보다 한국어운용(이해)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일본인 청자」 조건에서 발화시간이 길어질 것이며 발화양도 증가하리라는 것이 가설로 설정됐다. 오미경(2010)에서는 부산에 거주하는 한국어화자의 FT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세 단계에 걸쳐 발화분석을 하였다. 먼저 한국어화자가 두 종류(한국인, 일본인)의 청자에게 이야기를 전달할 때의 발화수와 발화시간을 분석한 결과 모두 차이가 없었음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의 원인을 오미경(2010)은 화자와 청자가 擬似적으로 対面하는 발화상황에서는 화자에게 미칠 수 있는 청자의 영향이란 미약하다는 점과 실험에서 설정된 화자와 청자의 관계가 서로 친화성이 없는 「첫 대면 상황」 이었다는 점이 상승작용을 하였다는

8) 李(2004)가 제시하는 8가지 불만 표명 방략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1) 불만의 미표명, (2) 간접적인 불만 표명, (3) 이유설명의 요구, (4) 명시적인 불만 표명, (5) 개선 요구, (6) 대상 요구, (7) 경고 내지 위협, (8) 비난.

사실에서 찾고 있다. 두 번째로 오미경(2010)은 애니메이션 중 스토리가 있는 특정 장면을 설정-커팅하고 그 해당 장면을 설명할 때 어떠한 발화특징이 있는지 비교분석하였다. 그러나 특정장면의 설명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청자유형에 따른 발화양에는 차이가 없었다. 세 번째로, 한국어화자가 청자를 배려한 의식정도에 따라 이야기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각각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서 비교하였다.⁹⁾ 그러나 두 종류의 애니메이션을 전달하는 발화를 비교한 결과에서도 청자유형에 따른 설명상황의 특징은 거의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오미경(2010)은 이러한 결과, 즉 비대면 상황에서는 청자유형(모어화자의 한국인청자, 비모어화자의 일본인청자)에 따라 발화양(발화문자수, 발화시간)과 발화질(설명묘사)에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결과는 커뮤니케이션을 공유할 수 있는 「他者」의 존재가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 또한 정보를 전달받을 커뮤니케이션 대상을 화자가 물리적(可視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비대면 상황에서 발화의 기능은 「他者」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라기보다 화자 자신의 기억에 따라 이야기를 구성하고 전개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을 덧붙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오미경은, 언어사회환경이 변해가는 가운데 모어화자가 비모어화자에게 보이는 FT 발화특징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언어사용환경이라는 발화문맥에 따라 FT가 어떻게 조정되고 영향을 받는지도 시야에 넣어야 한다고 논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오미경(2010)에서 보인 발화특징이 「비대면 접촉장면」에 기인하는 보편적 특징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또 다른 언어사용환경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 분석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제2언어환경에 살고 있는 한국어모어화자의 FT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나고야(L2환경)에서 한국어(L1)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발화행위를 분석하고자 한다.

2.4 선행연구 요약

첫째로, 지금까지 중간언어 화용론에 입각한 2언어 병용화자의 발화행위는 제2언어 환경에서 사용되는 제2언어에 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 이러한 관점은 언어사용환경(제2언어환경)을 제2언어 학습에 도달하기 위한 도구적 기능으로 보아왔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2언어 병용화자들이 제2언어환경에서 모어를 사용함으로써 부딪치게 되는 마찰과 충돌은 간과되어 온 경향이 있다. 이 점을 감안한다면 제2언어공간을 목표언어를 습득하기 위한 언어입력의 장치로만 볼 것이 아니며, 모어를 사용함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심리적 갈등에 대한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2언어환경(일본)에서 모어(한국어)를 사용한 발화행위도 고찰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오미경(2010)은 부산에 살고 있는 한국어모어화자를 대상으로 청자 타입(모어화자의 한국인청자, 비모어화자의 일본인청자)에 따른 차이가 FT 조정행동으로서 화자의 FT산출에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오미경은 비대면 상황에서는 청자유형에 따라 발화양(발화문자수, 발화시간)과 발화질(설명묘사)에 거의 차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오미경(2010)에서 보인 발화산출의 특징이 「비대면 접촉장면」에 기인하는 보편적 특징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또 다른 언어사용환경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통한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2언어환경(일본)에 살고 있는 한국어모어화자의 FT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해당도시 나고야에서 한국어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발화행위를 알아보려고 한다.

9) 여기서 네 가지 유형이란 청자에게 자세한 상황설명을 한 경우(「자세한 상황설명(감정이입)」)와 간단하게 상황을 설명한 경우(「간단한 상황설명」), 줄거리만 설명한 경우(「줄거리 설명」), 마지막으로 특정장면에 대한 설명이 없는 경우(「해당설명 없음」)를 말한다.

3. 연구의 목적과 방법

3.1 목적과 가설

본 연구는 이문화접촉공간인 나고야에 살면서 한국어를 모어로 하는 2언어 병용화자를 대상으로 이들 한국어모어화자가 청자의 언어능력을 배려하는지, 배려한다면 FT라는 조정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나고야에 거주하는 한국어모어화자의 FT발화산출 특징이 부산에 거주하는 한국어모어화자의 선행연구(오미경, 2010)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는 것에 있다. 이들 두 그룹의 2언어 병용화자를 모어(Korean)와 실험상황에서 요구한 발화언어(Korean), 실험을 실시한 장소(Busan 혹은 Nagoya)를 토대로 해서 부산에 거주하는 2언어 병용화자인 경우는 KKB(Korean-Korean-Busan)라고 표기할 것이며, 나고야에 거주하는 2언어 병용화자인 경우는 KKN(Korean-Korean-Nagoya)이라고 표기할 것이다. 만약 오미경(2010)의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FT의 발화양상이 「비대면 접촉장면」에 기인하는 보편적 현상이라면 이문화접촉공간인 나고야(KKN)에서의 결과도 유사한 양상을 보일 것이다. 그러나 만약 이문화접촉공간에 있는 한국어모어화자에게 의미교섭의 경험(언어마찰, 갈등, 혼호)이 더 누적되어 있으며 이러한 경험으로 인해 청자에 대한 발화동기가 더 높다고 한다면, 선행연구 부산(KKB)에서의 결과와는 다른 산출양상이 나타날 것이다.

3.2 연구방법

3.2.1 실험상황

실험은 화자(피험자)와 청자가 직접 대면하지 않는 「非対面(non face-to-face)」 상황에서 실시되었다. 여기에서 「非対面 상황」이란 피험자가 청자를 컴퓨터 화면으로 보면서 애니메이션 내용을 설명하는 상황을 말한다. 피험자와 청자가 직접 대면하는 상황에서는 청자와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응답의 신호(back channel)가 발생할 수 있다. 본 실험에서 사용한 非対面 상황에서는 피험자로 하여금 청자의 정지된 영상을 컴퓨터 화면으로 대면케 하여 청자로부터의 즉각적인 피드백을 피하게 하였다. 따라서 화자 발화산출에 미칠 수 있는 청자의 영향을 일정하게 유지하였다. 이 상황에서는 화자가 청자의 즉각적인 피드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상호간 의미교섭을 하며 이야기를 진행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실험의 발화상황에서는 부산의 한국어화자보다 나고야의 한국어화자에게 이문화간 의미교섭의 경험이 더 누적되어 있다면 이것이 타자에 대한 언어적 배려로서 작용하여 다양한 FT발화로써 표출될 것이라 예상된다.

3.2.2 청자타입(속성)

청자의 타입(속성)은, 청자가 자기소개시 사용하는 언어를 기준으로 하여 「한국인 청자」와 「일본인 청자」 두 종류로 설정하였다. 이때 「일본인 청자」는 일본어를 모어로 하는 화자로서 자기소개를 일본어와 한국어로 하였으며, 「한국인 청자」는 한국어를 모어로 하는 화자로서 자기소개를 한국어와 일본어로 하였다. 그리고 일본인 청자의 한국어 운용능력은 초급수준임을 모든 피험자들에게 알렸다¹⁰⁾. 표 1은 본 실험에서 설

10) 일본인 청자의 한국어 운용능력을 피험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본 실험에서 사용한 구체적인 설명문은 다음과 같다. 「당신이 설명한 만화영화의 내용을 들을 일본인은 부경대학교의 유학생으로 한국어를 이해할 수는 있지

정한 청자의 속성을 나타낸다.

표 1 청자의 속성¹¹⁾

	한국인 청자 (Native speaker listener)	일본인 청자 (Non-native speaker listener)
신분 (발화언어)	한국인 유학생 (한국어 → 일본어)	일본인 유학생 (일본어 → 한국어)

注: →는 청자가 자기소개시에 사용한 언어 사용 순서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한국어 → 일본어」는 청자가 처음에는 한국어로 말하고 이어서 일본어로 자기소개를 하는 것을 뜻한다.

注: 여기에서는 한국어를 모어로 하는 화자를 편의상 한국인이라고 표기하며, 일본어를 모어로 하는 화자를 일본인이라고 표기한다.

3.2.3 애니메이션 자료

피험자의 과제는 두 종류의 애니메이션을 각각 관찰한 후에 그 내용을 특정 청자에게 설명하는 것이었으며, 이때 설명과제로서 비디오테이프에 녹화된 애니메이션을 사용하였다. 설명과제로서의 애니메이션은 두 종류가 선정되었는데, 그 중 하나는 꿩과 물개가 등장하는 「꿩구(P)」라는 제목의 애니메이션(약6분)이고, 다른 하나는 고양이와 쥐와 오리가 등장하는 「툼과 제리(TM)」라는 제목의 애니메이션(약6분)이다¹²⁾. 이때 각 개인의 피험자에게서 가정할 수 있는 일본어 청해 능력이나 기억 등의 요인이 본 실험에 혼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오리지널 테이프에 포함되어 있는 일본어음성 및 효과음은 제시하지 않았다.

3.2.4 실험절차

두 종류의 애니메이션 비디오는 각각 전후반 2회로 나뉘어 제시되었고, 피험자는 총 네 번의 전달과제를 연속적으로 수행하였다. 즉 모든 피험자의 이야기 전달과제는 청자타입(한국인, 일본인)과 애니메이션타입(꿩구, 툼과 제리)을 조합하여 총 네 번에 걸쳐 수행되었다. 예를 들어 1회에서 2회까지 「한국인청자」에게 「꿩구」의 애니메이션 내용을 전달하였다면, 3회에서 4회까지는 「일본인청자」에게 「툼과 제리」의 내용을 전달하게 하였다. 애니메이션 타입과 청자타입을 제시한 순서는 피험자 사이에서 균형화(counterbalance)되었다. 표 2는 2 종류의 애니메이션 타입과 2 종류의 청자타입을 제시한 순서를 나타낸다.

만 한국어가 모어이지는 않습니다. 그 일본인의 한국어 이해능력은 초급수준입니다.」

- 11) 청자의 사용언어를 2언어병용으로 설정한 이유는 화자(피험자)에게 청자의 모어와 장소(거주권)를 명확하게 인식시키기 위해서였다. 즉 본 연구에서 한국인 청자는 부산에 사는 학생이며 처음에는 한국어가 모어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 한국어로 자기소개를 하고, 이어서 일본어가 제2언어임을 나타내기 위해 일본어로 자기소개를 하였다. 한편 일본인청자는 부산에서 유학하고 있는 학생이며 처음에는 일본어가 모어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 일본어로 자기소개를 하고, 이어서 한국어가 제2언어임을 나타내기 위해 한국어로 자기소개를 하였다.
- 12) 본 연구의 설명과제로서 두 종류의 애니메이션, 즉 '꿩구'와 '툼과 제리'를 선택한 이유는 다음의 두 가지이다. 첫 번째 이유는 피험자들이 유년기 혹은 청년기에 시청한 적이 있어 친밀도가 있는 재료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영상적이며 운동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풍부한 발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예상하였기 때문이다.

표 2 애니메이션 타입(2 종류)과 청자타입(2 종류)

		Tom & Jerry	Pingu
8명	01-04	한국인	일본인
	05-08	일본인	한국인
		Pingu	Tom & Jerry
8명	09-12	한국인	일본인
	13-16	일본인	한국인

4. 결과

4.1 데이터 분석방법

본 연구는 나고야에 거주하는 한국어모어화자의 한국어 발화 중에서 FT를 주된 분석대상으로 한다. 데이터 분석은 질문용지와 발화내용의 두 가지 종류를 토대로 하여 이루어졌다. 발화내용의 분석에서는 먼저 각 피험자의 비디오 기록에 담겨 있는 발화내용이 문자화되었고, 1 음절을 기준으로 하여 발화문자수가 산출되었다. 즉 내용어(예컨대 동사, 명사, 형용사, 부사)와 기능어(예컨대 접속사, 조사, 간투사 등)를 구별하지 않고 1음절을 기준으로 발화문자수를 계산하였다. 다음으로 그 발화 문자수를 바탕으로 해서 두 종류의 청자별(한국인청자, 일본인청자)로 발화문자수와 발화시간을 산출하였다.

4.2 분석결과

4.2.1 질문용지에 입각한 의식조사 결과

본 연구의 피험자는 부산에 살고 있는 한국어모어화자로서 부경대학교에서 일어일문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부생 및 대학원생 16명이었다. 표 3은 16명의 피험자 속성 및 청자의 한국어 이해능력에 대한 피험자의 인지도를 나타낸다.

표 3 피험자의 속성 및 청자의 한국어이해능력 추정

피험자 번호	성 별	연 령	체재 기간	청자 배려	청자의 한국어 이해능력 추정
01	女	23	2개월	Yes	L
02	女	22	7개월	Yes	LS
03	男	26	1년	Yes	L
04	男	23	1년	Yes	L
05	男	29	2년 1개월	No	L
06	女	22	1년	Yes	LS
07	女	22	2개월	No	LS
08	男	28	2개월	Yes	L
09	女	22	2개월	No	S
10	男	19	8개월	Yes	L
11	女	22	2년	Yes	LS
12	女	26	2년 3개월	Yes	LS
13	女	23	2개월	Yes	L
14	女	25	1년	Yes	L
15	男	19	8개월	Yes	LS
16	男	29	6년 2개월	No	LS

注: 한국어 이해능력 추정에서 LS란 피험자가 일본인 청자에게서 추정한 한국어이해능력 수준을 「한국어로 듣고 이해할 수도 있고 말을 할 수도 있다」로 추정한 것을 뜻한다. 그리고 L은 「한국어로 듣고 이해할 수는 있지만 말을 할 수는 없다」, S는 「한국어로 말을 할 수는 있지만 듣고 이해할 수는 없다」로 추정한 것을 뜻한다.

실험이 종료된 후에 피험자가 응답한 질문용지의 결과를 정리하면, 비모어화자인 일본인 청자에게 배려하였다고 대답한 사람은 12명(75%, 이하 配慮群이라 약칭)이며 배려하지 않았다고 대답한 사람은 4명(25%, 이하 非配慮群이라 약칭)이다. 본 연구는 일본인 청자에 대한 한국어모어화자의 FT 발화특징을 알아보는 것이 목적이므로 배려군의 발화 데이터만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 질문용지에 의하면 12명의 배려군 중 5명은 자신이 전달하는 한국어 이야기 내용을 일본인 청자가 듣고 이해할 것이라고 예상하였고, 7명은 들을 수만 있다고 예상하였다. 그림 1은 12명의 배려군이 일본인 청자에게서 추정한 한국어이해능력 수준에 대한 인지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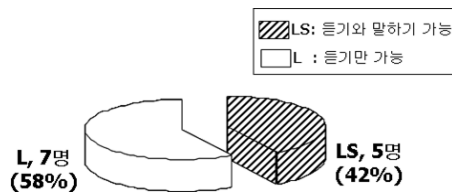


그림 1 일본인청자의 한국어이해능력 수준에 대한 인지도

그림 1에서 알 수 있듯, 12명의 배려군은 모두 자신이 한국어로 전달하는 이야기 내용을 일본인 청자가 듣고 말할 수 있거나 듣고 이해할 수 있다고 예상하였다. 그래서 이들 배려군이 구체적으로 청자에 대해 어떤 언어적 측면을 배려했는지 분석한 결과를 표 4와 그림 2에 나타내었다.

표 4 한국어화자(나고야)의 청자에 대한 언어적 배려여부와 그 측면

피험자 번호	청자 배려 유무	배려의 측면
01	Y	쉬운 단어
02	Y	자세한 설명, 천천히 발음
03	Y	쉬운 단어, 간단한 문장
04	Y	쉬운 단어, 제스처
05	N	
06	Y	쉬운 단어
07	N	
08	Y	간단한 문장
09	N	
10	Y	쉬운 단어, 천천히 발음
11	Y	쉬운 단어, 정확한 발음
12	Y	쉬운 단어, 천천히 발음
13	Y	쉬운 단어, 제스처
14	Y	쉬운 단어
15	Y	쉬운 단어
16	N	

(※ 복수 대답허용)

표 4의 FT 발화특징을 보면, 먼저 「쉬운 단어」를 사용하였다는 피험자가 10명(피험자번호 01, 03, 04, 06, 10, 11, 12, 13, 14, 15)이며, 천천히 발음하였다는 피험자가 3명(피험자번호 02, 10, 12), 간단한 문장으로 설명하였다는 피험자가 2명(피험자번호 03, 08), 제스처를 사용하여 설명하였다는 피험자가 2명(피험자번호 04, 13), 자세한 설명을 하였다는 피험자가 1명(피험자번호 02), 마지막으로 정확한 발음으로 설명하였다는 피험자가 1명(피험자번호 11)이었다. 일본인 청자에 대해 배려하지 않았다고 대답한 피험자는 4명(피험자번호 05, 07, 09, 16)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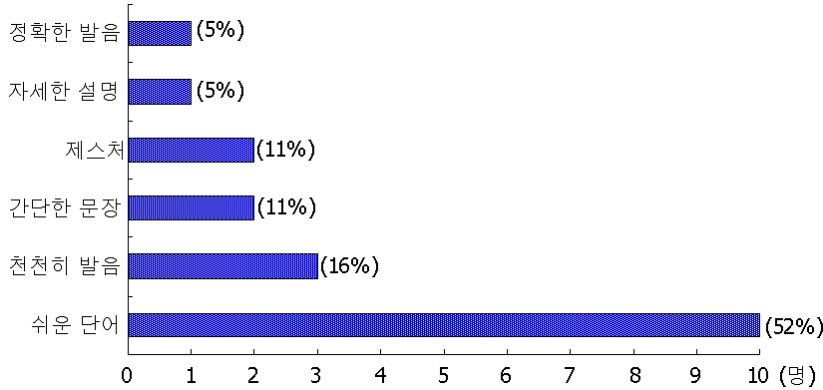


그림 2 나고야 거주 한국어화자(배려군)의 청자에 대한 언어적 배려

4.2.2 발화분석에 의한 결과

한국어화자가 일본인 청자에게 배려하였다고 한 언어적 측면(그림 2)을 고빈도 순위로 보면, 「쉬운 단어」가 가장 많고 「천천히 발음」과 「간단한 문장」, 「제스처 사용」, 「자세한 설명」 그리고 「정확한 발음」의 순이다. 이들 FT 조정항목에 공통되는 점은 청자에게 「알기 쉽도록 전달하는 것」을 의식했다는 것이다. 이들 여섯 가지 항목에 근거해 볼 때, 한국어화자가 청자에게 FT와 같은 의식적 배려를 하였다면 이야기가 전달될 때 「한국인 청자」 조건보다 한국어이해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일본인 청자」 조건에서 발화시간이 더 짧아질 것이며 발화어휘양도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청자의 구분에 따른 발화양과 발화시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음이 확인되었다. 그림 3은 본 연구의 한국어화자가 산출한 청자별 평균발화시간이며, 그림 4는 청자별 총 발화문자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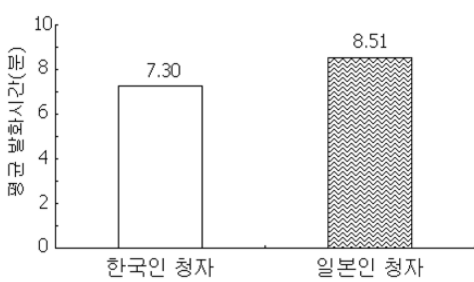


그림 3 청자별(한국인, 일본인) 평균발화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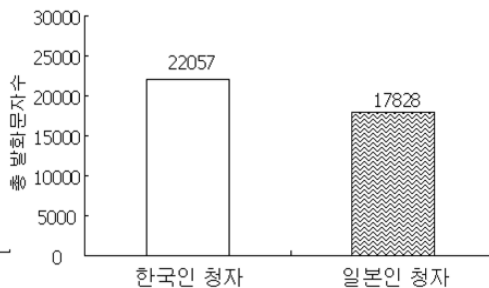


그림 4 청자별(한국인, 일본인) 총 발화문자수

한국어화자가 두 종류(한국인, 일본인)의 청자에게 이야기를 전달할 때 총 발화수와 발화시간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그림 3과 그림 4). 그래서 오미경(2010)과 동일한 방법으로 전달과제인 두 종류의 애니메이션 중 스토리가 있는 부분을 각각 한 장면씩 커팅하여 그 장면을 설명할 때 어떠한 발화특징이 있는지 비교분석하였다. 두 종류의 애니메이션을 분석한 장면은 표 5에 나타냈으며, 분석한 결과는 그림 5에 나타내었다.

표 5 두 종류의 애니메이션 중 발화분석 장면

애니메이션 분석 장면	
핑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얼음 웅덩이가 두 개 과인 곳 중 한 곳에서 펭귄(핑구) 한 마리가 낚싯대에 해초를 끼워 낚시를 하고 있다. - 잠시 후 물고기 한 마리를 낚은 항구가 이를 뒤쪽에 던져 둔다. - 뒤쪽 얼음 웅덩이에서 나온 물개 한 마리가 항구의 낚시하는 모습을 보고는 바다 속에 있는 해초는 먹어 버리고 항구가 낚은 물고기는 다시 낚싯대에 걸어 두기를 세 번 정도 반복한다.
툰과 제리(T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리새끼 한 마리가 자신은 다른 형제들과 달리 헤엄칠 줄 모르는 것을 한탄하면서 걸어간다. - 고양이(툰)가 마침 식사하려고 준비해 두었던 깡통으로 들어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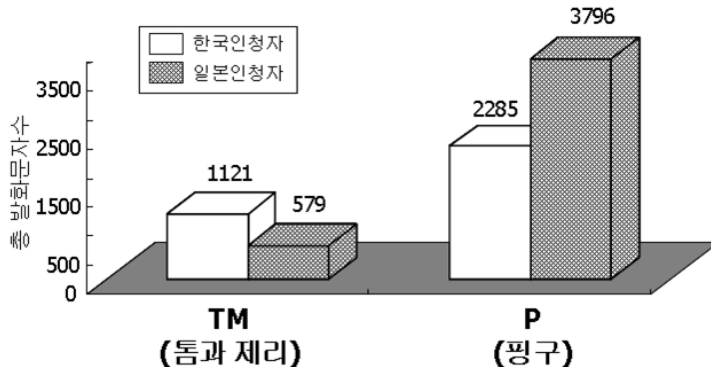


그림 5 전달과제(TM, P)에 의한 청자타입별 문자수

두 종류의 애니메이션 중 특정장면을 설명하는 발화를 분석한 결과, 청자 유형에 따른 발화양(문자수)의 산출은 서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한국어화자가 「툰과 제리(TM)」를 전달하는 장면에서는 일본인청자(579)보다 한국인청자(1121)에서 발화양이 약 1.9배 더 많았다. 반대로 「핑구(P)」를 전달하는 장면에서는 한국인청자(2285)보다 일본인청자(3796)에서 발화양이 약 1.7배 더 많았다. 즉 두 애니메이션의 특정 장면을 각각 선별하여 커팅·분석한 결과 항구(P)를 설명하는 과제에서만 일본인청자에게 더 많은 발화양이 산출되었다. 그래서 청자 유형에 따라 이야기를 설명하는 FT 조정에는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분석해 보았다. 표 6은 12명의 화자가 애니메이션 이야기를 전달할 때 청자유형의 차이에 따라 어떻게 상황을 설명하였는가를 나타낸다.

표 6 전달과제(TM, P)별 특정장면 설명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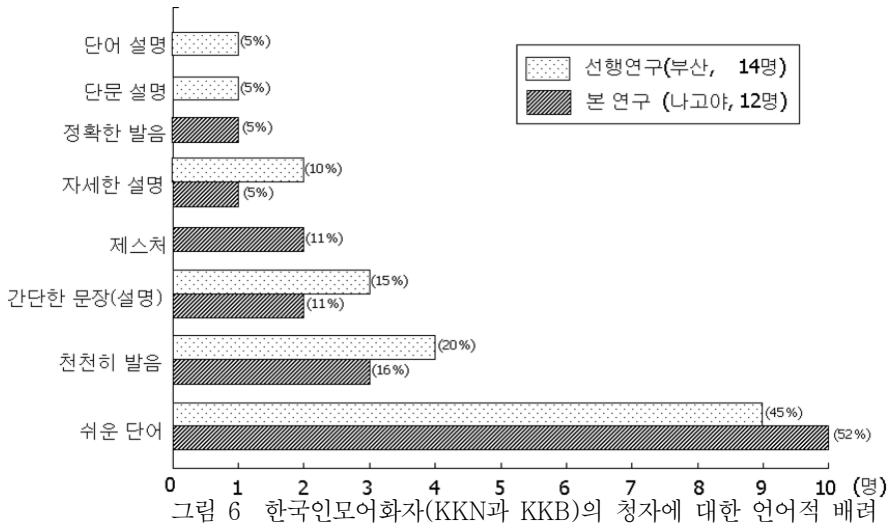
화자	청자	톰과 제리(TM)		핑구(P)	
		한국인(K)	일본인(J)	한국인(K)	일본인(J)
01		○			●
02		○			●
03		△			△
04		●			●
06			△	○	
08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합계		●1, ●1, ○3, △2	●1, △3, ×1	●1, ●3, ○1	●1, ●5, △1

● 아주 자세한 설명, ● 자세한 설명, ○ 간단한 설명, △ 줄거리 설명, × 해당 설명 없음.

먼저 표 6의 전체적 합계를 보면 전달과제 1(톰과 제리)에서는 청자유형에 따른 상황설명의 차이가 보이지만, 전달과제 2(핑구)에서는 청자유형에 따른 상황설명의 차이가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다.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설명할 때 언어전환(code switching)이 발생한 피험자를 살펴보면 모두 9명(피험자번호 01, 02, 06, 08, 10, 11, 12, 13, 14)이다. 구체적으로 「한국인청자」 보다 「일본인청자」에게 더 자세한 설명으로 언어전환을 한 피험자는 4명(피험자번호 01, 02, 13, 14)이며, 「일본인청자」보다 「한국인청자」에게 더 자세한 설명으로 언어전환을 한 피험자는 5명(피험자번호 06, 08, 10, 11, 12)이다. 즉 「일본인청자」(4명)보다 「한국인청자」(5명)에서 더 자세한 설명으로 언어전환이 출현하였다. 그러나 이들 9명의 피험자는 모두 「핑구」를 설명하는 과제에서만 언어전환을 하였다. 따라서 언어전환이 발생한 원인으로 실험재료(애니메이션)에 의한 영향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실험의 결과만으로 청자요인에 의한 영향이라고 결론짓기는 어렵다.

4.2.3 부산거주 한국어모어화자와의 비교분석

본 절에서는 KKN를 대상으로 한 본 실험의 결과와 KKB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오미경, 2010)의 실험결과를 종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두 화자 그룹이 각각 한국어로 발화하는 조건에서 FT의 발화산출을 살펴보면 먼저 청자에 대한 언어적 배려는 거의 유사한 양상을 나타냈다. 그리고 선행연구(KKB)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본 연구(KKN)에서 나타난 새로운 항목으로서 「제스처 사용」과 「정확한 발음」이 있었다. 그림 6은 본 연구와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청자에 대한 언어적 배려」를 종합하여 나타내고 있다.



다음으로 두 화자 그룹에서 청자별 평균발화시간은 선형연구(KKB)보다 본 연구(KKN)에서 더 길었으나, 발화양은 서로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그림 7은 본 연구와 선형연구에서 나타난 「청자별 발화시간 및 발화문자수」를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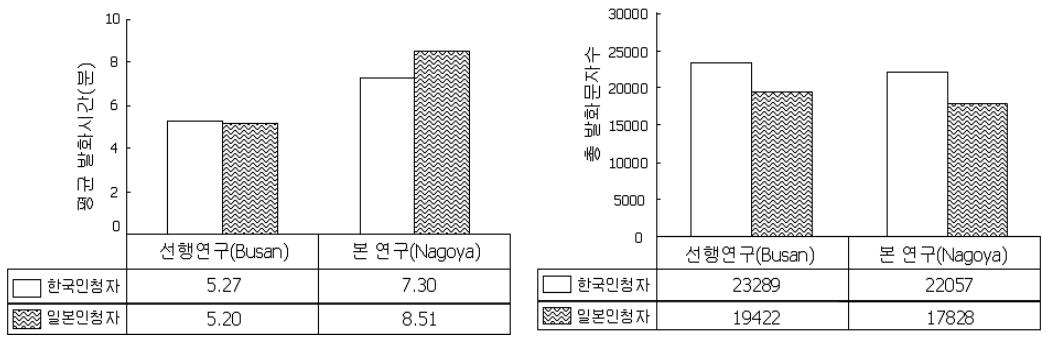


그림 7 한국인모어화자(KKN과 KKB)의 청자별 발화시간 및 발화문자수

마지막으로 전달과제(TM, P)에 의한 청자별 발화문자수는 두 화자 그룹에서 서로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그림 8은 본 연구와 선형연구에서 나타난 「애니메이션 전달과제(TM, P)에 의한 청자타입별 문자수」를 보여준다. 그림 8에서 알 수 있듯 애니메이션 타입별 총 발화양은 「톰과 제리(TM)」보다 「핑구(P)」에서 더 많이 산출되었다. 이 결과는 한국어모어화자가 「톰과 제리(TM)」보다 「핑구(P)」에서 기억에 따라 이야기를 구성하고 전개해 나갔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상대적으로 발화양이 적게 산출된 「톰과 제리」를 보면(왼쪽 그래프), 선형연구와 본 연구의 총 발화양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핑구」에서도(오른쪽 그래프) 두 화자 그룹에서 발화양의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단 「일본인청자」에게 전달하는 조건에서는 다소 다른 양상이 나타났는데, 즉 선형연구의 KKB(2519)보다 본 연구의 KKN(3796)에서 발화양이 약 1.5배 많이 산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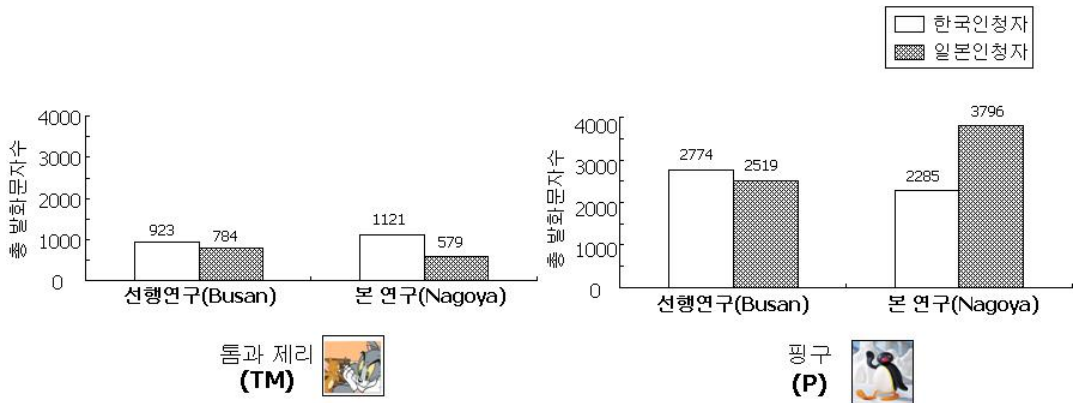


그림 8 한국인모어화자(KKN과 KKB)의 전달과제에 의한 청자별 문자수

5. 고찰: 한국어모어화자(나고야)의 발화에 보이는 FT

본 연구는 이문화접촉공간인 나고야에 거주하면서 한국어를 모어로 하는 2언어 병용화자를 대상으로 이들이 청자의 언어능력을 배려하는지, 배려한다면 FT라는 조정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하였으며, 이때 선행연구(오미경, 2010)와의 비교를 중심에 두었다. 본 연구에서는 오미경(2010)의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FT의 발화양상이 「비대면 접촉장면」에 기인하는 보편적 현상이라면 이문화접촉공간인 KKN의 결과도 유사한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그러나 만약 이문화접촉공간에 있는 한국어화자에게 의미교섭의 경험이 더 누적되어 있으며, 이 경험으로 인해 청자에 대한 배려의식을 촉발시켜 발화동기를 높인다면 오미경(2010)의 KKB보다 다양한 FT 항목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나고야에 거주하는 한국어모어화자(KKN)의 FT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세 단계에 걸쳐 발화분석을 하였으며, 그 결과를 오미경(2010)과 종합하여 비교하였다. 먼저 1단계로서 KKN이 두 종류(한국인, 일본인)의 청자에게 이야기를 전달할 때 발화수와 발화시간을 분석한 결과, 청자별 평균 발화시간은 「한국인청자」보다 「일본인청자」에서 약간 많았다. 반대로 총 발화양은 「일본인청자」보다 「한국인청자」에서 약간 더 많았다. 그러나 KKN이 두 종류(한국인, 일본인)의 청자에게 이야기를 전달할 때의 발화수와 발화시간은 큰 차이가 없었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2단계로서, 애니메이션 중 스토리가 있는 특정 장면을 설정커팅하여, 그 해당 장면을 설명할 때 어떠한 발화특징이 있는지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KKN이 「톰과 제리」를 전달하는 장면에서는 「일본인청자」보다 「한국인청자」에서 발화양이 많았으나(약 1.9배), 반대로 「핑구」를 전달하는 장면에서는 「한국인청자」보다 「일본인청자」에서 발화양이 더 많았다(약 1.7배). 즉 두 애니메이션의 특정 장면을 각각 선별하여 커팅·분석한 결과 「핑구」를 설명하는 과제에서만 일본인청자에게서 더 많은 발화양이 산출되었다. 그러나 특정장면의 설명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청자유형에 따른 발화양에는 두드러진 차이가 없었다. 즉 총 발화양과 발화시간의 결과(1단계 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특정한 장면을 설명하는 부분에서도 청자유형에 따

른 차이가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다.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1단계의 애니메이션 전체장면을 설명할 때의 발화양(발화시간, 발화문자수)에는 청자유형에 따라 거의 차이가 없었다. 2단계의 애니메이션 특정장면을 설명할 때의 발화양(발화문자수)에서도 청자유형에 따라 거의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산에 거주하는 KKB와의 결과와도 일치하고 있는데, 오미경(2010)은 그 원인을 「비대면 접촉장면」이 지니고 있는 실험특징에서 찾고 있다. 요컨대 청자유형(한국인청자, 일본인청자)에 따라 발화양(발화문자수, 발화시간)에 거의 차이가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 오미경(2010)은 대인 커뮤니케이션이 지니고 있는 특징, 즉 기호화되어 있는 언어적·비언어적 행동을 他者와의 상호작용(interaction)을 통해 구체적으로 형성하고 변용하는 성질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비대면 발화 상황에서는 화자가 他者에 대한 언어적 배려를 의식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의식이 발화행동으로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고 해석을 하고 있다.

제2언어를 습득하기 위해 혹은 특정 전공분야를 공부하기 위해 목표언어권에 이주해 온 학습자(비모어화자)들은 목표언어사회의 모어화자 혹은 또 다른 비모어화자들과 같은 도시공간에서 일상의 삶을 꾸려나가고 있으며 같은 경제조직을 형성하며 생활하고 있다. 이때 언어는 사회 속에서 정보전달의 도구로서 기능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타자와의 관계를 형성하면서 살아가기 위한 매개체이기도 하다. 즉 비모어화자들은 언어를 통하여 타자와의 관계를 맺고 다양한 활동에 참가하면서 사회적 존재로서 살아간다. 한편 이문화접촉공간에서 모어화자와 비모어화자는 「언어의 벽」으로 인한 마찰과 충돌을 겪기도 하는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도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다양한 의미교섭의 경험을 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문화접촉공간에서 살아가는 2언어 병용화자에게 있어 他者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언어를 달리하는 사람, 혹은 국적을 달리하는 사람을 가리키는가? 그러나 이미 이문화접촉공간에서 자기실현을 달성하기 위해 이문화 사회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비모어화자들에게 他者を 구분하는 일이 유의미하지 않을 수 있다. 倉八(1992)는 일본국내에 있는 일본어학습자의 학습목적이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에 착목하여 학습자의 문화적 배경과 학습동기(motivation)의 종류를 조사하였으며,¹³⁾ 그 결과를 네 가지 특징으로 요약하고 있다. 倉八(1992)에 따르면, 먼저 아메리카 지역의 학습자는 직업이라는 의무적 목적보다는 호기심을 가지고 새로운 경험을 하려는 統合적 동기(integrative motivation)가 더 강하였다.¹⁴⁾ 다음으로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의 학습자는 道具적 동기(instrumental motivation)로 도입하는 경향이 강하였지만, 일본어 공부에 대한 동기는 상대적으로 강하지 않았다. 세 번째로 유럽지역의 학습자는 統合적 동기를 가지고 내일하였지만 일본어 공부를 할 때는 道具적 동기로 공부하는 경향을 보였다. 즉 일본문화에 통합하기 위한 도구로서 일본어를 배우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통가(Tonga)와 같이 일본과 문화적으로 크게 다른 지역의 학습자는 전공공부를 한다는 강한 의식을 지니고 도입하였다. 倉八(1992)는 이 네 가지 결과를 바탕으로 학습자의 문화적 배경과 학습動機는 서로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결과는 또한 학습자의 최초 학습동기가 이문화접촉공간에서 생활하게 됨에 따라 변용되어간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한다. Ushioda (2001)은 아일랜드 대학에서 프랑스어를 이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1년 만에 걸쳐 2번의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Ushioda(2001)는 학습자는

13) 倉八(1992)는 메릴랜드 대학(University of Maryland)과 大東文化대학에서 두 번에 걸쳐 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제1조사의 대상자는 메릴랜드 대학의 초급 일본어코스에 등록해 있는 약60명의 학생이었으며, 제2조사의 대상자는 大東文化대학별과에서 공부하고 있는 중국인 학습자 및 통가인 학습자들이었다.

14) 여기서 統合적 동기란 목표언어집단에 참가하기 위해 그 언어집단에서 사용되고 있는 언어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경우(예컨대, 목표언어화자를 더 잘 알고 싶다, 목표언어권 문화에 흥미가 있다 등)를 말하며, 道具적 동기란 목표언어를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예컨대, 장래 직업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전공서적이나 자료를 읽기 위해서이다 등)를 말한다.

학습과정의 경험을 긍정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격려하며 학습을 계속해 나가는 방법, 즉 자신에 대한 동기부여의 방법을 찾아낸다고 해석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지견은 목표언어권 공간에서 학습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2언어 병용화자들이 언어만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이질적 언어사회와의 다양한 접촉을 경험하며 그 누적된 경험으로 인해 목표언어사회에 점차적으로 적응해 간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이렇듯 특정언어의 모어화자가 비모어화자에 대해 갖는 언어적 배려로 인한 FT 조정행동은 이문화접촉공간에서 생활한 경험과 유기적 관계에 있을 것이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오미경(2010)은 부산에 거주하는 한국어모어화자에게 나타난 FT 발화결과, 즉 발화시간과 발화양이 청자별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결과의 배경에는 비대면 접촉이라는 장면특성이 영향을 주었다고 해석하고 있지만, 비대면 접촉장면에 기인하는 특징만이 아니라 너와 내가 뒤섞여 함께 살아가는 이문화 접촉경험에 기인하는 특징일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3단계로서, KKN이 청자를 배려한 의식정도에 따라 이야기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각각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서 비교하였다. 여기서 다섯 가지 유형이란 청자에게 아주 자세한 상황설명을 한 경우(「아주 자세한 상황설명」)와 청자에게 자세한 상황설명을 한 경우(「자세한 상황설명(감정이입)」), 간단하게 상황을 설명한 경우(「간단한 상황설명」), 줄거리만 설명한 경우(「줄거리 설명」), 마지막으로 특정장면에 대한 설명이 없는 경우(「해당설명 없음」)를 말한다.¹⁵⁾ 두 종류의 애니메이션을 전달하는 발화를 비교한 결과, 청자유형에 따른 설명상황은 서로 상이한 양상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KKN이 애니메이션 「툼과 제리」를 전달할 때는 「일본인청자」 보다는 「한국인청자」에게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였으며, 「핑구」를 전달할 때는 「한국인청자」보다 「일본인청자」에게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한 경향을 보였다(표 6 참조). 이러한 경향은 두 번째의 발화분석 결과, 즉 「툼과 제리」를 전달하는 장면에서는 「한국인청자」에서 발화양이 더 많았고 「핑구」를 전달하는 장면에서는 반대로 「일본인청자」에서 발화양이 더 많았다는 결과를 뒷받침하는 것이기도 한다. 그리고 본 실험에서 두 종류의 애니메이션을 설명할 때 언어전환(code switching)이 일어난 피험자는 모두 9명인데, 이들 9명의 피험자 모두 「핑구」를 설명하는 과제에서만 언어전환이 일어났다. 따라서 언어전환에 영향을 주었을 요인으로 실험재료(애니메이션)의 구성적 특징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실험의 디자인만으로 청자요인에 의한 영향이라고 결론짓기는 어렵다.

6. 맺음말

본 연구는 이문화접촉공간 나고야에 거주하면서 한국어를 모어로 하는 2언어 병용화자를 대상으로 이들이 청자의 언어능력을 배려하는지, 배려한다면 FT라는 조정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하였으며, 이 때 선행연구(오미경, 2010)와의 비교를 중심에 두었다.

본 연구에서는 나고야에 거주하는 2언어 병용화자(KKN)의 FT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세 단계에 걸쳐 발화분석을 하였으며, 그 결과를 오미경(2010)과 종합하여 비교하였다. 먼저 KKN이 두 종류의 청자(한국인, 일본인)에게 이야기를 전달할 때 발화수와 발화시간을 분석한 결과, 발화수와 발화시간에는 큰 차이가 없었음

15) 오미경(2010)에서는 「청자에게 아주 자세한 상황설명을 한 경우(「아주 자세한 상황설명」)의 항목이 설정되지 않았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오미경(2010)에서는 출현하지 않았던 상세한 설명으로 전달한 발화 피험자가 존재하였으므로 하나의 하위항목, 즉 「아주 자세한 상황설명」을 추가하였다.

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애니메이션 중 스토리가 있는 특정 장면을 설정-커팅하여 그 해당 장면을 설명할 때 어떠한 발화특징이 있는지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핑구」를 설명하는 과제에서만 일본인청자에게 더 많은 발화양이 산출되었다. 그러나 특정장면의 설명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청자유형에 따른 발화양에는 두드러진 차이가 없었다. 즉 전체장면을 설명한 총 발화양과 발화시간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특정장면을 설명하는 부분에서도 청자유형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KKN이 청자를 배려한 의식정도에 따라 이야기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각각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서 비교하였다. 여기서 다섯 가지 유형이란 청자에게 아주 자세한 상황설명을 한 경우(「아주 자세한 상황설명」)와 청자에게 자세한 상황설명을 한 경우(「자세한 상황설명(감정이입)」), 간단하게 상황을 설명한 경우(「간단한 상황설명」), 줄거리만 설명한 경우(「줄거리 설명」), 마지막으로 특정장면에 대한 설명이 없는 경우(「해당설명 없음」)를 말한다. 두 종류의 애니메이션을 전달할 때의 발화를 비교한 결과, 청자유형에 따른 설명상황은 서로 상이한 양상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KKN이 애니메이션 「톰과 제리」를 전달할 때는 「한국인청자」에게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였으며, 「핑구」를 전달할 때는 「일본인청자」에게 더 자세하게 이야기한 경향이 나타났다. 그리고 본 실험에서 애니메이션을 설명할 때 언어전환(code switching)이 일어난 피험자는 모두 9명인데, 이들 9명의 피험자 모두 「핑구」를 설명하는 과제에서만 언어전환이 일어났다. 따라서 언어전환에 영향을 주었을 요인으로 실험재료(애니메이션)의 구성적 특징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실험의 디자인만으로 청자요인에 의한 영향이라고 결론짓기는 어렵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중요한 점은 제2언어환경인 나고야와 외국어환경인 부산에서 실시된 한국어모어화자(KKN, KKB)의 FT 발화특징에는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즉 본 연구에서는 KKN과 KKB의 FT 발화특징이 서로 다를 것이라고 예상한 것과는 달리 유사한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李(2003)¹⁶⁾에 의하면 모어가 쓰이는 외국어환경이라 할지라도 목표언어권에 방문해 본 적이 있거나 체재한 경험이 있는 학습자는 일본어 능력에 대해 긍정적인 자기평가를 내림으로써 학습에 대한 동기를 높인다. 따라서 李(2003)는 학습자의 모어가 쓰이는 외국어환경에서도 학습자가 학습에 대한 자기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된다면 높은 동기부여를 지속시킬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李(2003)의 지견에 따르면 제2언어환경인 나고야와 외국어환경인 부산에서 실시된 한국어모어화자의 FT 발화특징에 차이가 없다는 결과는 해항도시 부산이 놓인 언어사회환경이 다문화다언어로 변해가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보인 FT 발화특징이 「한국어모어화자」에 기인하는 고유한 특징인지, 아니면 특정한 개별언어의 모어화자와 관계없이 볼 수 있는 보편적 특징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앞으로 또 다른 언어(예컨대 일본어)를 모어로 하는 화자를 통해 연구를 개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6) 李(2003)은 외국어환경(한국)에 있는 한국인 JFL학습자 164명과 제2언어환경(일본)에 있는 한국인 JSL학습자 139명을 대상으로, 1) 동기부여 및 동기부여와 관련된 요인(학습에 대한 대처방법, 일본어능력에 대한 자기평정)과, 2) 동기부여와 경험요인(체제기간-체제경험-일본방문 경험)과의 관련성을 조사하였다.

【參考文獻】

- 박윤경 (2007) 「다문화 접촉 경험의 교육적 의미 이해: 초등 예비 교사들의 문화 다양성 관련 변화를 중심으로」 『시민교육연구』 39권 3호, pp. 147-183.
- 송미영 (2010) 「다문화 수용성의 원인 분석」 『민족연구』 41권, pp. 74-96.
- 오미경 (2010) 「他者に 대한 배려는 한국어모어화자의 포리너 토크(Foreigner Talk)에 영향을 미치는가?: 부산거주 화자의 비대면 접촉장면을 토대로 한 분석」 『日本語文學』 44집, pp. 67-93.
- 石井恵理子(2008) 「これからの日本語教育」 西原鈴子・西郡仁朗編 『講座社会言語科学4 教育・学習』 ひつじ書房, pp. 60-83.
- 李受香 (2003) 「第2言語および外国語としての日本語学習者における動機づけの比較: 韓国人日本語学習者を対象として」 『世界の日本語教育』 13, pp. 75-92.
- 李善禧 (2004) 「韓国人日本語学習者の「不満表明」について」, 『日本語教育』, 123号, pp. 27-36.
- 伊藤恵美子 (2002) 「マレー語母語話者の語用的能力と滞日期間の関係について: 勧誘に対する「断り」行為に見られる工学系ブミプトラのポライトネス」 『日本語教育』, 115号, pp. 61-70.
- 倉八順子 (1992) 「日本語学習者の動機に関する調査: 動機と文化的背景の関連」 『日本語教育』 77, pp. 129-141.
- 小林浩明(2000) 「日本語のフォリナー・トークにおける個人差」 『日本語・日本文化』 26, pp. 61-70.
- 迫田久美子 (2002) 『日本語教育に生かす第二言語習得研究』, アルク.
- 徐惠麟 (2002) 「日本語学習者の談話展開における視点に関する研究: JFLとJSLの学習環境の違いに注目して」 『教育学研究紀要』 中国四国教育学会, 第48巻第2部, pp.353-357.
- 辛銀眞((2009) 「日本国内接触場面のフォリナー・トーク使用に関する一考察: 非母語話者日本語教師の会話調査を通して」 『早稲田大学日本語教育学』 3, pp. 25-38.
- スクータリデス, A(1981) 「外国人の日本語の実態(3) 日本語におけるフォリナー・トーク」 『日本語教育』 45, pp. 53-62.
- 筒井千絵(2008) 「フォリナー・トークの実際: 非母語話者との接触度による言語調整ストラテジーの相違」 『一橋大學留学生センター紀要』 11, pp. 79-95.
- 橋内武(1999) 『ディスコース: 談話の織り成す世界』 くろしお出版.
- 宮崎里司(2002) 「第二言語習得における意味交渉の課題」 『早稲田大學日本語教育研究』 創刊号, pp. 71-89.
- Ferguson, C.(1971) Absence of Copula and the Notion of Simplicity a Study of Normal Speech, Baby Talk, Foreigner Talk and Pidgins. In D. Hymes (ed.) Pidgenization and Creolization of Languag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141-150.
- (1981) Foreigner Talk as the Name of a Simplified Register.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Sociology of Language. 28, pp. 9-18.
- Ushioda, E. (2001) Language learning at university: Exploring the role of motivational thinking. In Z. Dömyei, & R. W. Schmidt (Eds.), Motivation and second language acquisition. Honolulu, HI: University of Hawaii Press, pp. 93-125.

< 要 旨 >

異文化接触空間に滞在している第二言語併用者のフォリーナートークに関する研究

—名古屋滞在の韓国人留学生を中心として—

本研究は、異文化接触空間である名古屋に滞在している第二言語併用者(L1韓国語、L2日本語)を対象にし、韓国語を母語としていない日本人の聞き手(他者)の言語的能力を配慮しているか、配慮しているとすればフォリーナートーク(Foreigner Talk: FT)の調整行動にいかなる影響を及ぼすのかを、先行研究(呉, 2010)と比較しながら調べた。本研究では名古屋に滞在している第二言語併用者(Korean-Korean- Nagoya: KKN)のFT特徴を調べるために、3つのレベルにおいて発話分析を行った。まず、KKNが2種類の聞き手(韓国人、日本人)に物語を伝達する際に産出された発話を分析した結果、その発話数と発話時間に差が認められなかった。次に、2種類の伝達課題であるアニメーションの中でストーリーのある特定場面を切って、その特定場면을説明する際にはいかなる特徴があるのか分析した。その結果、「ピングー」を説明する課題のみにおいて「日本人の聞き手」により多くの発話量が産出された。しかしながら特定場면을説明する発話においても、聞き手タイプによる発話量の差は著しくないことが確認された。最後に、KKNが聞き手を配慮した意識の程度によって、物語をどのように描写しているかを5つのタイプに分けて比較した。ここで5つのタイプとは、聞き手にとても詳しく状況説明をした場合と、聞き手に詳しく状況説明をした場合、簡単に状況を説明した場合、粗筋のみを説明した場合、そして特定場面に関する説明がない場合をそれぞれ指す。2種類のアニメーション(特定場面)を伝達する際の発話を比較した結果、聞き手タイプによる説明状況の特徴は、やや相違したパターンが示された。本研究で確認した重要な点は、第二言語環境(名古屋)と外国語環境(釜山)で実施された韓国語母語話者のFT発話特徴(発話量、発話質)にはほぼ差が認められないことである。このことは、海港都市釜山の言語社会環境が多文化・多言語へ変わりつつあることを間接的に示唆するものである。

■ 오미경(吳美京)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HK연구 교수
omksung@hanmail.net

- 投稿日 : 2010년 5월 31일
- 審査開始 : 2010년 7월 5일
- 審査完了 : 2010년 8월 16일
- 掲載確定 : 2010년 8월 30일